

1960년대 대통령기록 분석*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곽 건 홍**

1. 들어가며
2. 기록 분석을 통한 주제별 분류체계 설계
3. 주제별 기록 유형과 그 특징
4. 인물·단체·장소별 기록 분석
5. 나오며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 주요 논저 :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역사비평사, 2003;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선인, 2014; 「특수기록관의 비공개 기록 이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42호, 2014.

▪투고일 : 2015년 6월 27일 ▪최초심사일 : 2015년 7월 6일 ▪게재확정일 : 2015년 7월 13일.

[국문초록]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60년대 대통령기록은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에는 주요 정책의 흐름과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과거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목록집은 내용 분석 없이 간단한 기록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1960년대 경제 분야 대통령기록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주제별 분류체계를 설계하고 기록 유형을 파악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의 분포 양상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 나타난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과제를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록 내용에 포함된 인물·단체·장소 등의 정보는 관련 기관의 기록 수집과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통령기록,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주제 분류, 경제 개발계획

1. 들어가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리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중요 기록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심지어 사저로 반출하기까지 했다. 대통령기록관이 보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은 생산 맥락과 관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 상실된 최종 결재기록들이다. 또한 “법령공포 원본, 임용·서훈 기록, 각급 행정기관의 보고기록”¹⁾ 등 가치에 대한 재평

1) 박건홍,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역사비평사, 2003, 124쪽.

가가 필요한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 중에서 가치가 높은 기록 가운데 하나는 1960년대에 생산된 기록들이다. 기록들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필로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높고, 구체적인 대통령 지시사항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은 1960년대 개발독재국가의 형성과정,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 등을 밝히는 데 단서가 되는 경제 분야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학에서 대통령기록을 활용하여 1960년대를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미국의 NARA,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등의 기록이 주요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²⁾

1960년대 대통령기록이 현대사 연구의 주요 사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록이 본질적·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기록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시기 대통령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도구는 2002년에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간한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I - 박정희대통령 문서편』(이하 『목록집』으로 줄임)이 유일하다.³⁾ 그러나 『목록집』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분류한 분류체계, 생산년도, 기록건명, 국가기록원 소장 마이크로필름 번호, 마이크로필름 쪽 등에 지나지 않는다(〈표 3〉 참조). 이와 같은 정보로는 이 시기 연구자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기록학 분야에서 대통령기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통령기록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⁴⁾ 1차 사료인 대통령기록 자체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3) 정부기록보존소,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I - 박정희대통령 문서편』, 2002.

4)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2006; 조영삼,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구에서는 근대 아카이브 제도 형성 시기에 아키비스트가 ‘역사학의 시녀’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아카이브는 기록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목록집』에 제시된 분류체계는 이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분류한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록 분류는 일정한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재해석하여 시민들에게 중재하는 것은 아키비스트가 수행해야 할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대통령기록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⁵⁾는 기록 내용 분석은 도외시 한 채 연역적 분석 방법을 통해 기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능분류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기능을 단순 배열하는 데 지나지 않았고, 기능과 기록과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기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첫째, 구체적인 기록 내용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별 분류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둘째, 주제별 분류체계에 따른 기록 유형 분석을 통해 기록 이해의 범주를 확대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이 시기 대통령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기록건명·생산연도 등 기존 『목록집』에 수록된 정보 뿐 아니라 정확한 생산일자, 출처 정보, 단체·인물·장소 등 기록에 포함된 정보적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시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 성립 이전 시기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경제 분야 기록으로 한정하였다.⁶⁾

5) 강경희,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함가경,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유형 분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 기록 분석을 통한 주제별 분류체계 설계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1960·70년대 대통령기록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전체 기록 양은 23,456건이며, 이들 기록은 생산기관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대통령비서실 생산 기록 총 7,995건 가운데 1963~1972년까지의 경제 분야 기록 1,386건을 분석하였다.

<표 1> 대통령기록관의 1960·70년대 대통령기록 현황

기관 명	수량(건)	기관 명	수량(건)
대통령비서실	7,995	국가안전보장회의	4
감사원	73	산림청	1
건설부	167	상공부	3
경제과학심의회	158	서울특별시	19
경제기획원	163	수산청	7
과학기술처	6	외무부	552
문교부	1	재무부	233
교통부	6	전매청	9
국가보훈처	19	조달청	1
국세청	10	철도청	1
농림수산부	27	체신부	4
동력자원부	2	총무처	2,499
문화공보부	25	해운항만청	9
법무부	24	행정개혁위원회	34
법제처	11,387	환경처	1
병무청	12	관세청	2
부산직할시	1	합계	23,456

* 출처 : 정부기록보존소,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I - 박정희대통령 문서편』, 2002.

- 6) 『목록집』 분류체계 중 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의명지시·재경·총무·과학기술·노동·원호·농수산·상공·부실기업·포항체철·중화학·건설 등의 분류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대통령기록물 목록집』의 대통령비서실 생산 기록 분류

분류명	분류명
의명지시	부실기업
재경	포항제철
총무	중화학
과학기술	건설
문화관광	조경·보사
노동·원호	교통
새마을운동	체신
특별지원	서울시
치안	지방행정
국방	연설문
문교	서한
농수산	의전일지
상공	

* 출전 : <표 1>과 같음.

〈표 3〉 『대통령기록물 목록집』의 기록 건 정보

분야	생산년도	기록 건명	M/F번호	M/F페이지
의명지시	1964	식량 증산	대재91-0001	1
	1964	AID차관 도입 촉진	대재91-0001	3
	1964	절량(絶糧)농가에 대한 대책	대재91-0001	5

* 출전 : <표 1>과 같음.

대통령비서실 생산 기록은 〈표 2〉와 같이 25개의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결재한 후 관련 기관에 시행한 ‘의명지시’에 속한 기록들은 상세하게 분류되지 않았으며, ‘재경’·‘농수산’ 등에 속한 기록 또한 〈표 4〉와 같이 다양한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기능 분류 방식을 취했으나, 전체적으로 기록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역사 연구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익숙한 주제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주제 분류는 ‘대일청구권자금’·‘전쟁특수’ 등과 같이 이 시

기 연구 주제를 고려하여 분류하였으며, ‘농수산’과 같이 여러 분야의 기록이 함께 묶여있는 경우 ‘농업’·‘어업’·‘축산’·‘산림’ 등으로 상세 분류하였다. 기록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제 분류체계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제 분류를 통한 경제 분야 기록의 재구성

주제 분류	목록집 분류											
	건설	과학 기술	노동 원호	농수산	부실 기업	상공	의명 지시	재경	중화학	총무	포항 제철	합계
건설	113	1		5		1	11	2				133
경제 정책	1	1				15	9	22	3	8		59
공업	1	2		5		157	21	17	7		24	234
과학 기술		81				3	4					88
관세								5				5
광업						5	1	1				7
국민 생활				3			6					9
국세								6				6
금융						2	7	31				40
노동			13			3		1	1			18
농업	2			200			36	4				242
대일 청구권 자금		1		6			2	5				14
무역				1		8	13	7				29
부동산								1				1
부실 기업					37							37
산림				27								27
상업						1	3	1				5
어업				60		8	3	2				73
에너지		8				24	3	1	1			37
외자 도입						2	1	96				99
유통								1				1

자원 개발		15		1		4	2	8				30
재정								52		1		53
전매								1				1
전쟁 특수			1	14		8	5	8				36
정부 투자기관								4				4
중소 기업						2	3					5
차관				11			7	18				36
축산				51				1				52
통신						3						3
특허								1				1
합계	117	109	14	384	37	246	138	294	12	9	24	1386

박정희 전 대통령기록 이관 당시 분류체계를 주제별로 재분류한 결과 ‘농수산’ 384건은 농업 52%, 어업 15.6%, 축산 13.3%, 산림 7% 등이었다. ‘상공’은 공업이 63.8%로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에너지 9.8%였다. ‘의명지시’는 농업 26.1%, 공업 15.2%, 무역 9.4%였다. ‘재경’은 외자도입 32.7%, 재정 17.6%, 금융 10.5% 순이었으며, 31개 주제 중 26개 주제에 분포되어 있다.

주제별로 재분류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기록은 농업 17.5%였으며, 공업 16.9%, 건설 9.6%, 외자도입 7.1%, 과학기술 6.3%, 어업 5.3%, 경제정책 4.3%, 재정 3.8% 순이었다.

〈표 5〉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변천

1964년 2월 12일		1968년 3월 21일	
총무		경제1	재경
의전			농림
정보			상공
공보			건설
민원		경제2	교통

민원수집반			보사·원호
	행정실		과학기술
정무	경제기획원, 농림, 상공, 건설	경제3(1969.8)	
	총무처, 내무, 국회, 당	외채관리(1969.11)	
	외무, 국방	정무	외교·국방
	교통, 수산, 해사		문화·공보
	법무, 문교, 공보		총무·법무
	보사, 통신, 원호		지방행정
	재무	공보	정당·국회
	특수업무		사회·언론
		민정	공보
			연설문
			민정
			정보
			특민
		의전	서신
			청원
			일정·행사

* 출처 : 총무비서실, 『대통령비서실 편람』, 2003, 142-153쪽.

『목록집』은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출처별로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기록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1960년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이 시기 대통령비서실 직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1963년 12월 제정되었다. 이 때의 직제는 1964년 2월 개정된 직제와 민원수집반이 추가되었을 뿐 매우 유사하다. 1968년 3월 개정된 직제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큰 틀에서 1974년 1월 개정 전까지 유지되었다. 1969년 8월에는 경제3수석, 같은 해 11월 외채관리수석을 신설하였다. 또한 1970년 12월에는 경제비서실을 하나로 통합하였다(<표 6>의 경제에 해당함).⁷⁾

7) 김정해,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1쪽.

〈표 6〉 출처에 따른 경제 분야 기록의 재구성

	경제1	경제2	경제3	경제	민정	외체관리	정무	총무	합계
건설	53	1		43			25	1	123
경제 정책	15	2		9			25		50
공업	101	6		7			44	1	150
과학 기술		79					5		84
관세	3			1					4
광업	4			1			2		7
국민 생활	2			1			6	1	9
국세				1			3		4
금융	11			8			13		32
노동	2	2			1				5
농업	101		1	17			108	7	234
대일 청구권 자금	1	1		1			9		12
무역	8	1	1	2			5	1	18
부동산							1		1
부실 기업	6		7			14			27
신림	10			8			9		27
상업	2						1		3
어업	15	14		5			32		66
에너지	10	8		1			11		30
외자 도입	13		71	5		2	6		96
유통				1					1
자원 개발	4	16					8		28
재정	41			1			8		50
전쟁 특수	4			3			18		25
정부 투자기관				3			1		4
중소 기업							2		2
차관	6	1	1	6			17		31
축산	40	1		2			7		50
통신	3								3
특허	1								1
합계	456	132	81	128	1	16	366	11	1191

* 비고 :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은 통계에서 제외함.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출처가 분명한 기록은 1,386건 가운데 1,191건이었다. 경제1수석비서관이 456건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으며, 민정(수석)비서관 30.7%, 경제2수석비서관 11.1%였다. 경제1수석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은 공업·농업·재정·축산, 민정(수석)비서관실은 농업·공업의 비율이 높다. 경제2수석비서관실은 과학기술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직제에 나타난 업무분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3수석비서관실은 외자도입, 외채관리수석비서관실은 부실기업이 압도적이다.

3. 주제별 기록 유형과 그 특징

〈표 7〉 주제별 기록 유형

주제	기록 유형	기록건수	합계(건)
건설	간척사업	2	133
	건설업체	1	
	공유수면	5	
	공장건설	1	
	교량건설	1	
	국공유지	4	
	국토개발	4	
	댐건설	4	
	도로건설	51	
	도시계획	17	
	상수도건설	2	
	어린이회관	1	
	위락시설	1	
	조경	2	
	주택건설	11	
	철도건설	3	
	터널건설	1	
	하천정비	3	
	한국수자원개발공사	1	
	항만건설	11	
해외건설	1		
건설일반	6		

경제정책	8·3조치	3	59
	경제개발계획	10	
	대외경제협력	13	
	수출정책	14	
	정책홍보	7	
	경제정책일반	12	
공업	가구공업	1	234
	가내공업	2	
	공업단지	26	
	공장건립	2	
	공장지방분산	1	
	군수공업	1	
	금속공업	6	
	기계공업	20	
	목재공업	3	
	법제정비	1	
	비료공업	8	
	산업시찰	1	
	석유화학공업	30	
	섬유공업	9	
	소다공업	3	
	시멘트공업	6	
	식품공업	4	
	요업	6	
	유리공업	1	
	자동차공업	9	
	전자공업	14	
	제당업	1	
	제사공업	2	
	제약공업	1	
	제지공업	1	
	제철공업	6	
	조선공업	7	
	철강공업	8	
	통조림공업	2	
	펄프공업	4	
포항종합제철	42		
화학공업	6		

과학기술	과학기술센터	6	88
	과학기술자	3	
	과학기술후원회	3	
	국립과학관	2	
	기술협력	6	
	문화재보존	5	
	선박건조	1	
	연구개발	16	
	연구기관장회의	1	
	연구소지원	1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1	
	전국과학기술자대회	1	
	지하수개발	5	
	학술회의	1	
	한국개발연구원	1	
	한국과학기술연구소	28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1	
	한국과학원	3	
과학기술일반	3		
관세	밀수	4	6
	관세일반	2	
광업	광산 개발	2	7
	무연탄	1	
	석탄	3	
국민생활	광업일반	1	9
	물가	6	
	생필품	1	
	영세민	1	
	저축	1	
국세	국세청	1	6
	세무사찰	2	
	조세저항	1	
	탈세	1	
	국세일반	1	
금융	금리	2	40
	기업금융지원	6	
	농업협동조합	1	
	대출	3	
	보험	3	
	부정축재	1	
	외환	3	
	은행설립·인가	10	
	주식	4	
	환율	2	
금융일반	5		

노동	기능공양성	6	18
	노동력수출	3	
	직업교육	1	
	파업	8	
농업	개간	2	242
	과수재배	1	
	농가부업	4	
	농경지정리	7	
	농민소득증대	13	
	농산물수출	6	
	농어촌개발공사	11	
	농업고등학교	1	
	농업금융	7	
	농업기계화	4	
	농업용수	15	
	농업정책평가	1	
	농업진흥공사	2	
	농업협동조합	12	
	농촌공업	16	
	농촌주택개량	3	
	농촌지도자양성	4	
	모범부락	2	
	법제정비	4	
	비료	15	
	세금	2	
	수매	1	
	수질오염	1	
	식량	53	
	양잠	5	
	연료	1	
	자연재해	7	
	증산	12	
	토지개량조합	2	
	특용작물	10	
	품종개량	3	
	한미농상회담	1	
	한일농상회담	1	
화전민	1		
회훼	1		
농업일반	11		
대일청구권자금	농업	1	14
	어업	7	
	중소기업	2	
	청구권협정	1	
	청구권자금일반	3	

무역	가공무역	1	29
	구상무역	1	
	담배	2	
	무역진흥확대회의	2	
	수입개방	1	
	수입제한	1	
	수출진흥확대회의	8	
	운송	1	
	원자재수출	1	
	인삼	4	
	채소	2	
	철도차량수출	1	
	무역일반	4	
부동산		1	1
부실기업		37	37
산림		27	27
상업	백화점	2	5
	보세업	2	
	주조업	1	
어업	부산수산센터	1	73
	대한조선공사	7	
	선박	4	
	수산물가공	2	
	수산물수출	4	
	수산업협동조합	5	
	수산청	2	
	양식업	6	
	어론헌계선	2	
	어업권	3	
	원양어업	9	
	재해	2	
	한국수산물개발공사	10	
	해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	2	
	해양오염	1	
	해운센터건립	1	
어업일반	13		
에너지	무연탄	1	37
	중유	3	
	석유	2	
	석탄	1	
	원자력발전소	13	
	전력	16	
	천연가스	1	
외자도입	외국인투자	6	98
	외자도입심의위원회	75	
	외자도입일반	17	

유통	운송	1	1
자원개발	국내자원개발	16	30
	해외자원개발	14	
재정	국유재산	3	53
	예비비	32	
	예산회계	15	
	재정운영	2	
	주택채권	1	
전매	담배	1	1
전쟁특수	군납	2	36
	노동력수출	5	
	면세	1	
	전투식량	17	
	대베트남경제협력	9	
	전쟁특수일반	2	
정부투자기관		4	4
중소기업		5	5
차관	AID차관	2	37
	IMF차관	6	
	곡물차관	1	
	독일차관	1	
	미국차관	1	
	상업차관	2	
	세계은행(IBRD)차관	6	
	아시아개발은행(ADB)차관	5	
	어업차관	3	
	일본차관	1	
	차관일반	9	
	축산	낙농업	
사료		2	
연료		1	
축산물수입		1	
축산물수출		2	
축산진흥계획		1	
한국미사회		1	
축산일반		23	
통신	전화	3	3
특허		1	1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주제별 기록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기록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은 [식량] 21.9%였으며, 양곡정책·저곡가정책·추곡 수매 등 식량문제와 관련된 기록이 대부분이다. 그 밖에 [농촌공업] 6.6%, [농업용수] 6.2%, [비료] 6.2% 등의 순이며, 매우 다양한

기록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공업의 기록 유형은 [포항종합제철]이 약 18%로 가장 많았다. [포항종합제철] 기록 유형은 대부분 사업추진 현황과 차관 도입과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공업] 12.8%였으며, 대부분 석유화학공업 추진 현황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호남정유 공장 건설 현황과 관련된 기록도 6건이 존재한다. 그밖에 1960년대 공업단지 조성 현황을 보여주는 [공업단지] 12.4%, [기계공업] 8.5% 등의 순이었다.

[공업단지] 기록 유형에 대한 기록 건 정보는 <표 8>과 같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공단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9건으로 가장 많은 점이 주목된다. 그밖에 구로공단과 관련이 있는 기록은 4건이었다.

<표 8> 기록 유형 [공업단지]의 기록 건 정보

기록 유형	기록건명	생산 연도	이관 당시 분류 명칭	출처	장소
공업 단지	각하 지방순시서 말씀하신 사항	1969	의명지시	정무	이리공단
	공업단지 개발 공단의 조세 감면 건의	1969	상공	—	—
	공업단지 건설용 재산반입 허가 요청	1966	상공	정무	—
	구로동 공업단지의 이차단지 확장	1967	상공	—	구로공단
	구로동 및 부평공업단지의 기술경영 종합진단 추진보고	1970	과학기술	경제2	구로공단 부평공단
	구로동 수출공단 사업실적 및 계획	1968	상공	—	구로공단
	구로동 입주기업체 현황 및 문제점	1967	상공	—	구로공단
	구미 공업단지 수해 현황 보고	1969	상공	—	구미공단
	구미 공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1969	상공	—	구미공단
	구미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1969	상공	—	구미공단
	구미 공업단지 조성자금 조달 및 공사추진 상황	1969	상공	—	구미공단
	구미 공업단지 추진 현황	1969	상공	—	구미공단
	구미 공업단지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	1969	상공	—	구미공단
	구미 공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보고	1969	상공	—	구미공단
	대통령각하 지방관서 초도순시서 지시 및 건의사항	1968	의명지시	—	—
	마산 수출자유지역 조성사업 계획보고	1970	건설	경제	마산공단

마산 임해 공업단지 조성계획	1969	상공	—	마산수출자 유지역 구미공단
마산지구 개발 기본계획	1969	상공	—	마산수출자 유지역
부평 수출공업단지 지원 조치 현황	1969	상공	—	부평공단
부평 수출공업단지 조성계획 추진현황	1967	상공	—	부평공단
선산 공업단지 개발 현황	1969	상공	—	구미공단
수출공업단지 조성업무추진을 위한 조치결과	1967	상공	—	—
인천 비철금속 공업단지 자금지원에 관한 검토	1970	재경	—	인천비철금 속공단
인천 수출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1968	상공	—	인천수출공 단
인천기계공업단지 조성	1969	의명지시	경제1	인천기계공 단
제3 수출공업단지 조성 후보지 선정	1969	상공	—	—

건설 133건 가운데 [도로건설] 기록 유형은 51건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도로건설]은 대부분 경인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건설 관련 기록들이다. 그밖에 [도시계획] 기록 유형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기록이다.

외자도입은 98건 가운데 [외자도입심의위원회] 기록 유형이 76.5%를 차지했다. [외자도입심의위원회] 기록은 외자도입 인가 신청 검토·의결 안건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 기록들은 외자도입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 외자도입 정책과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 88건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기록 유형이 28건(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 16건(18.2%) 등이었다. 그밖에 다보탑 등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관련된 기록도 존재한다.

어업은 [한국수산개발공사], [대한조선공사] 등 공사 운영 관련 기록이 23.3%를 차지했다. 그밖에 [수산업협동조합], [양식업], [원양어업],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차관 37건 가운데 [IMF차관] 기록 유형은 6건, [세계은행(IBRD)차관] 6건, [아시아개발은행(ADB)차관] 5건 등이다. [IMF차관] 관련 기록은 IMF 조사단의 활동 관련 기록이 대부분이다.

전쟁특수 기록은 [전투식량(C-Ration)] 기록 유형이 47.2%를 차지했다. [전투식량은 전투식량(C-Ration) 제조와 관련된 공장 건설, 수출 교섭, 품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베트남 파병 장비에 대한 면세 등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

부실기업과 관련된 기록들은 부실기업 정비대책, 동립산업·대성목재 등 부실기업에 대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기록은 2건만 존재한다.

에너지 37건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기록 유형은 13건이며, 구체적으로 기록 건 정보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원자력발전소] 기록은 대부분 원자력발전소 추진 현황에 대한 것이다.

<표 9> 기록 유형 [원자력발전소]의 기록 건 정보

기록 유형	기록건명	생산연도	이관 당시 분류 명칭	출처
원자력 발전소	과학기술처장관의 기술협력 교섭결과에 관한 귀국보고	1972	과학기술	경제2
	원자력 발전사업 추진 현황보고	1968	과학기술	경제2
	원자력발전 도입을 위한 해외조사 보고	1968	상공	—
	원자력발전 추진현황 보고	1968	과학기술	경제2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현황보고	1968	과학기술	경제2
	원자력발전사업 추진현황 보고	1968	과학기술	경제2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1968.4	과학기술	경제2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1968.5	과학기술	경제2
	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 현황보고	1968.12	과학기술	경제2
	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 현황보고	1969.12	중화학	경제1
	원자로 건설	1966	상공	—
	웨스팅하우스 회사 사장의 서한 요약 보고	1968	상공	경제1
	한전 정 사장 ⁸⁾ 의 외자차관 교섭	1969	상공	경제1

대일청구권자금은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실무자 회담 관련 기록 1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일청구권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노동 18건 가운데 노동자 [파업] 기록 유형은 8건이며, 그밖에 기능공 양성, 노동력 수출 관련 기록 등이 존재한다.

경제정책 59건은 [수출정책] 14건, [대외경제협력] 13건, [경제개발계획] 10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개발계획은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한 세미나 기록이 대부분이며, 이관 당시 분류명칭은 총무였다. 곧 경제개발계획의 핵심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차 5개년계획 관련 기록은 2건만 존재한다. 요컨대 대통령비서실 잔존 기록만으로는 이 시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사채동결을 골자로 한 8·3 긴급금융조치 관련 기록 3건이 존재하지만, 정책 결정의 배경과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은 아니다.

<표 10> 기록 유형 [경제개발계획]의 기록 건 정보

기록 유형	기록건명	생산연도	이관 당시 분류 명칭	출처
경제개발 계획	Balassa 교수 <제3차 5개년 계획 고문>의 의견 건의	1970	건설	경제
	시정자료(일하는 해 실천방안 제2차 5개년 계획수립 검토 경제행정기구개혁안 등)	1965	총무	정무
	전 공무원 및 정부산하단체 직원에 대한 정부 시책 브리핑	1966	총무	정무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정부주요시책 세미나 실시보고(제10회)	1966	총무	정무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66년도 정부주요 시책 세미나 실시보고(제11회)	1966	총무	정무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66년도 정부주요 시책 세미나 실시보고(제12회)	1966	총무	정무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66년도 정부주요 시책 세미나 실시보고(제14회)	1966	총무	정무

8) 당시 한국전력 사장은 정래혁임.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66년도 정부주요 시책 세미나 실시보고(제15회)	1966	총무	정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총량계획)의 문제점	1966	재경	정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안) 및 제 1, 2차 계획의 실적과 과제	1969	재경	경제

4. 인물·단체·장소별 기록 분석

김익한은 불균형 잔존기록의 평가방법과 관련한 연구에서 불균형 잔존 기록은 “그 잔존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기록 전체를 철저히 분석한다 해도 기록이 생성된 원래의 행위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균형 잔존기록의 재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록 대신 행위, 기능, 사실을 분석 평가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⁹⁾ 이와 같은 기능 분석적 평가방법론은 기록 수집 정책 등을 마련하는 데에는 일정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록 내용 분석을 통해 정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록 내용 분석을 통해 기록 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역사학 등의 이 시기 연구자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표 11〉 주요 인물 관련 기록 건 정보

인물	기록건명	생산 연도	출처	주제	기록유형
김완희	김완희박사의 예비조사 계획	1967	—	공업	전자공업
	전자공업진흥원(가칭)설립을 위한 예비조사	1968	정무	공업	전자공업
박태준	EAKIN씨의 구미지역 출장보고	1969	경제1	공업	포항제철
	종합제철사업에 관한 주미대사관의 전문요약	1969	경제1	공업	포항제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이사 개선 건의	1970	경제2	과학 기술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9) 김익한,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평가방법 시론」, 『기록학연구』 13호, 2006, 192-197쪽.

신격호	제41차외자도입심의위원회(7월19일)	1969	경제1	외자 도입	외자도입심의 위원회
신현확	제68차 외심위 의결안건(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1972	경제3	외자 도입	외자도입심의 위원회
이병철	은행주에 대한 정부지배 약화	1968	경제1	금융	부정축재
	제3 및 제4비료 공장 진척현황	1964	정무	공업	비료공업
이휘소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칭)창립 추진현황 보고	1971	경제2	과학 기술	재미한국과학 기술자협회
정인영	제66차외심위 의결안건(주식회사 현대양행)	1972	경제3	외자 도입	외자도입심의 위원회
	제68차외심위 의결안건(주식회사 현대양행)	1972	경제3	외자 도입	외자도입심의 위원회
정주영	강원은행 설립내인가	1970	경제	금융	은행설립인가
	현대조선소 건설을 위한 추진현황(중간보고)	1971	경제	공업	조선공업
조중훈	정부소유 주식 공매	1968	경제1	금융	주식
최형섭	과학기술연구소 설치 추진상황	1966	정무	과학 기술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과학기술처장관의 기술협력 교섭결과에 관한 귀국보고	1972	경제2	에너지	원자력발전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임기만료 이사 유임건의	1969	경제2	과학 기술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표 12〉 주요 기업 관련 기록 건 정보

기업	기록건명	생산 연도	이관 당시 분류 명칭	출처	주제
기아산업	외자도입인가신청검토(제45차외심위 보고서)	1969	재경	경제3	외자도입
	상업차관인가검토(제56차 외심위보고 서)	1971	재경	경제3	외자도입
	제63차 외심위 의결안건(기아산업주 식회사)	1972	재경	경제3	외자도입
대한항공	외자도입인가신청 검토(제44차 외심 위보고서)	1969	재경	경제3	외자도입
	상업차관 인가검토(제58차 외심위보 고서)	1971	재경	경제3	외자도입
동아건설	정부소유주식 공매(2차)	1968	재경	경제1	금융
삼성	삼분사건에 관한 관계장관회의	1964	농수산	정무	농업

삼풍건설산업	제64차 외심위 의결안건(삼풍건설산업주식회사)	1972	재경	경제3	외자도입
선경합섬	제67차 외심위 의결안건(선경합섬주식회사)	1972	재경	경제3	외자도입
쌍용시멘트	알젠친에 대한 시멘트 처녀 수출	1969	상공	경제1	공업
	쌍용양회 영월공장 2차 확장	1972	상공	경제1	공업
쌍용양회공업	제68차 외심위 의결안건(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1972	재경	경제3	외자도입
쌍용(주)	쌍용의 대단위 Cement공장에 대한 BoozAllen & Hamilton의 검토(요약발췌)	1967	상공	정무	공업
제일모직	제일모직 경산공장 준공 보고	1969	상공	경제1	공업
한일합섬섬유	한일합섬의 증설에 관한 미국 스퀘리회사의 파견	1969	상공	경제1	공업
	주일 민총식 공사의 전언 통신 요약보고	1969	상공	경제1	공업
	제65차 외심위 의결안건(한일합섬섬유주식회사)	1972	재경	경제3	외자도입
현대건설	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건의	1968	건설	정무	도로
	현대건설 축산5개년 계획	1968	농수산	경제1	축산
	상업차관 인가검토	1971	재경	경제3	차관
현대양행	제65차 외심위 의결안건(현대건설주식회사)	1972	재경	경제3	외자도입
	제66차 외심위 의결안건(주식회사현대양행)	1972	재경	경제3	외자도입
현대자동차	제68차 외심위 의결안건(주식회사현대양행)	1972	재경	경제3	외자도입
	현대자동차공장 건설 추진현황 보고	1968	상공	경제1	공업
현대조선소	현대조선소 건설을 위한 추진현황(중간보고)	1971	건설	경제	공업
	방어진순환도로 개수계획(현대조선소 진입도로)	1972	재경	경제1	건설
호남정유	호남정유 공장건설의 문제점	1967	상공	—	공업
	여수 호남정유 건설 현황	1968	상공	—	공업
	호남정유 공장건설 현황	1968	재경	정무	공업
	호남정유 공장건설 현황	1968	상공	경제1	공업
	여수 호남정유공장 원공 보고	1969	상공	—	공업
	호남정유 건설 현황	1969	상공	—	공업

	외자도입 인가신청 검토(제45차 외심위 보고서)	1969	재경	경제3	외자도입
	외자도입 인가신청 검토(제46차 외심위 보고서)	1970	재경	경제3	외자도입
아세아자동차공업	아세아자동차 공장부지 선정	1966	상공	정무	공업
	상업차관 인가검토(제55차 외심위보고서)	1971	재경	경제3	외자도입

첫째, 주요 인물과 관련된 기록 건 정보는 <표 11>과 같다.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관련 정보는 현대조선소 건설 추진 현황 기록 등 2건이 존재하며,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관련 정보는 [부정축재] 기록 유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라그룹 창업자인 정인영 관련 정보는 [외자도입심의회] 기록 유형에 존재한다. 그밖에 포항종합제철 전 회장 박태준, 재미 물리학자 이휘소,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단체별 기록 정보에 대해서는 주요 기업과 공사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업에 관한 기록 건 정보는 <표 12>와 같다. 현대건설·현대자동차·현대조선소·현대양행 등 현대그룹 관련 기록 건은 9건이며, 그 가운데 현대건설 관련 기록은 경인고속도로 건설, 축산계획, 차관도입 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GS칼텍스(주)의 전신인 호남정유(주) 관련 기록은 7건이며, 그 내용은 주로 공장 건설 현황과 외자도입 인가신청 기록이다. 그밖에 쌍용그룹 관련 기록 4건, 기아산업 관련 기록 3건 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주요 公社와 관련된 기록 건 정보는 <표 13>과 같다. 대한조선공사 관련 기록 건이 11건으로 가장 많으며, 대한조선공사의 운영과 노동자 파업, 비위 사실 보고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력 관련 기록 건은 8건이며, 자금운영과 차관도입,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대한주택공사 관련 기록 건은 5건이며, 대부분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기록이다. 그밖에 한국도로공사 관련 기록 5건, 대한석탄공사 4건, 대한석유공사 2건 등이 존재한다.

〈표 13〉 주요 公社 관련 기록 건 정보

公社	기록건명	생산 연도	이관 당시 분류 명칭	출처	주제
대한석유공사	석유공사의 심각한 자금난의 현황 및 대책	1968	상공	경제1	공업
	남사 분해센터 건설 추진 현황	1969	상공	경제1	공업
대한석탄공사	무연탄 코오코스 산업화 추진	1968	상공	경제1	공업
	무연탄 코오코스 산업화 계획	1969	상공	경제1	공업
	석탄공사 노조의 임금 인상 쟁의	1970	상공	경제1	노동
	예비비지출 재가 품의(영세민 구호대책비)	1972	재경	경제1	재정
대한조선공사	대한조선공사가 제2차 5개년계획기간 중 수행할 수 있는 육상부문 공사에 관한 보고	1966	상공	정무	어업
	대한조선공사의 업무현황 보고	1966	상공	정무	어업
	대한조선공사 시설확장 차관 추진 경위	1966	상공	정무	어업
	대한조선공사가 제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수행할 수 있는 육상부문 공사에 관한 보고	1966	상공	정무	어업
	대한조선공사 김두찬 사장 비위사실 고발에 대한 보고(부산시경 중간보고)	1967	농수산	정무	어업
	대한조선공사 업무량 장기확보 대책	1967	농수산	정무	어업
	대한조선공사의 업무현황 및 당면 문제점 보고	1967	상공	—	어업
	민영화기업체의 주식인수 촉구 및 운영촉진에 관한 보고	1969	상공	—	경제 정책
	조선공사 등 4개 기업에 대한 대책과 삼양수산 신흥수산 신흥냉동의 선박 및 시설할용계획	1969	부실기업	경제1	부실기업
	대한조선공사 파업 및 직장폐쇄에 관한보고	1969	상공	경제2	노동
대한주택공사	조공 노조쟁의 종결을 위한 대책 건의	1969	상공	경제2	노동
	대한주택공사의 외인주택 건설(아파트)계획	1969	건설	경제1	건설
	한강 맨션 단지 건설사업 계획	1969	건설	경제1	건설
	한강 맨션 아파트 준공 보고	1970	건설	경제	건설
	남서울아파트단지 건설사업계획보고	1971	건설	경제	건설
한국도로공사	한성프리웨이 주식회사공장(조립식주택자재 생산) 준공보고	1971	건설	경제	건설
	고속도로 연도개발 제1호사업	1969	건설	경제1	건설
	1970년도 도로공사 운영에 관한 건의	1969	건설	경제1	건설
	대전-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기공식	1970	건설	경제	건설
	도로공사에 대한 각하지사 조치사항 보고	1970	건설	경제	건설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각하지사 조치사항 보고	1971	건설	경제	건설
한국전력	추산 수력발전소 운영 정상화	1968	상공	경제1	에너지
	웨스팅하우스 회사 사장의 서한 요약 보고	1968	상공	경제1	에너지
	한국전력의 자금상의 문제점 해결	1969	상공	경제1	에너지
	한전 정 사장의 외자차관 교섭	1969	상공	경제1	에너지
	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 현황보고	1969	중화학	경제1	에너지
	상업차관 인가검토(제49차 외심위보고서)	1970	재경	경제3	외자 도입
	상업차관 인가검토(제54차 외심위보고서)	1970	재경	경제3	외자 도입
	한국전력의 동해전력 인수	1972	상공	경제1	에너지

〈표 14〉 주요 장소 관련 기록 건 정보

장소 주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건설	5	12	3	5		2	1	9	17	2	5	2	7	5	1		76
공업	2	1	4	23	1	1		1	7	5	10	7	3		2	1	68
광업				2													2
국민 생활	1																1
금융						1		1									2
농업	5	5	5	9					2	1	2	12	4	5	5	3	58
무역								1									1
산림				4					1					1			6
어업	3		1					6					1	2	3		16
에너지	1			5													6
외자 도입				1				1									2
자원 개발				2													2
중소 기업												1					1
축산	2	4	1										1	3	1		12
합계	19	22	14	51	1	4	1	19	27	8	17	21	17	16	12	4	253

* [포항종합제철] 기록 유형은 통계에서 제외함.

셋째, 장소에 대한 기록 정보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장소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 건은 253건이며, 경북 51건(20.1%), 서울 27건(10.7%), 경기 22건(8.7%) 등이다. 주제별로는 건설 76건(30.0%), 공업 68건(26.9%), 농업 58건(22.9%) 순으로 비율이 높다. 건설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44.7%를 차지했다. 공업은 68건 가운데 경북이 23건으로 33.8%를 차지했다. 농업은 전남·경북의 기록 건 비율이 높았다.

5. 나오며

이 글은 1960년대 경제 분야 대통령기록에 대한 사례를 통해 그동안 기록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기록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주제별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기록관의 분류체계-이관 당시의 분류명칭-가 매우 비체계적임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이관 당시 분류명칭인 ‘농수산’에 속한 기록의 경우 농업·어업·축산·산림·차관·전쟁특수·대일청구권자금 등으로 기록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주제 분류체계 재설계에 따른 기록의 양적 비율은 농업·공업·건설·외자도입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었는지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출처 정보를 재구성하면, 경제1수석비서관·경제2수석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이 약 50%에 이르렀다.

둘째, 주제별 기록 유형을 살펴보면, 농업은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 문제와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공업의 경우 포항종합제철 건설, 석유화학공업, 기계공업, 공업단지와 관련된 기록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이 시기 공업 분야의 주요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은 도로건설 등의 비율이 높았으며,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자 한 정부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의 경우 정책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으며, 성과를 홍보하는 기록이 대부분이다.

셋째, 기록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적 가치에 주목하여 인물·단체·장소 정보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 주요 기업인에 대한 정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록 건은 양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단체 정보는 주요 기업과 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은 현대그룹·호남정유, 공사는 대한조선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관련 기록이 많았다. 또한 장소 정보는 경상북도 관련 기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는 기관의 경우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글에서 제시한 기록 내용 분석 방법이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 수집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현대사 연구의 기초 사료인 대통령기록의 이용을 촉진하는 계기로도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nalysis of presidential records in the 1960s : focused on economic sector

Kwak, Kun-Hong

The National Archives's presidential records in 1960s are neither complete nor accurate. However these records are worth enough to researchers as a source of the main policy stream and informations of the time. In the past, the catalog of National Archives only contained simple record information without the analysis of content. Therefore this article designed the subject classification scheme based on analysis of presidential records in economic sector. The distribution aspect of the subject record type is the clue to understand the main project of presidential secretary in 1960s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lso the information of the content of record such as the character, association, location invigorate the collection of record and its use to related organizations.

Key words : Presidential Records, National Archives, Presidential Archives,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